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한국 / 호주 전지역 택배
세계 각국 택배

● 일반이사 ● 해외이사
● 택배이사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회사
전통있는 최우수회사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고객 만족도 100%

7개 라인 최다차량 보유 8대
02 9648 2424

0431 24 24 24 23-25 Byrne St,
070 7899 4444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Australia NO.1 Korean Community Newspaper

한진IT 허 안토니오 Manager

분야별 전문 IT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 서버(AD, Exchange, DB)
- 네트워크 (WAN, LAN, VPN)
- Virtualization (vmware, Hyper-V)
- Security, Monitoring, Support
- Cloud Computing, Thin Client
- 도메인, 호스팅(자체 서버 보유)

it@hanjin.com.au / www.hanjin.com.au
02 8064 7466 / 070 7899 4400

No. 1582(호) 2024년 4월 12일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제이원 보석
J.Won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금 매입합니다.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T. 9763 1355**
Mon-Fri : 10am-6pm / Sat : 10am-3pm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주세요)



4월 10일(수) 치러진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저녁 투표 마감 후 민주당 대표 상향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손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 국회의원기자단

K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고용법 이혼

KIM & ASSOCIATES
김성호 대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
(02) 9283 5550
KNA1805

Hti Home Loan Finance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 파이낸스

장현철 **0430 421 115**

miraе 미래종합금융/보험
Insurance Services

우량 보험사간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즈니스 보험을 찾어드립니다

- 신규사업 보험 전문 상담 ■ Public Liability
- 상업용 건물 · 차량 · 장비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Professional Indemnity
- 생명보험 · 암보험
- 현재 가입된 보험 무료 Review

호주 전 지역 보험 진행 가능

www.miraefinance.com.au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6층 603호 **1300 882 595**

종합음악학원 **Lily Kim Music Academy**

기초가 탄탄한 아름다운 음악교육

- ✓ 1:1 오프라인 개인수업
- ✓ 1:1 온라인 수업
- ✓ ABRSM Exam 준비
- ✓ 취미반
- ✓ 성인반
- ✓ 기타 등.. 수업문의

0401 575 567
lilykimmusicacademy@gmail.com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의석' 확보
범야권 '압도적 의석'으로 정국 주도... 윤 정부, 국정동력 타격 예상 ▶A3면

Service NSW, 4월 9일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A4면

차기 호주 총독 지명된 사만타 모스틴(Samantha Mostyn)은 누구? ▶A24면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AUS SOLAR ENERGY GROUP 태양광

솔라 설치!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꼬치전문점

일 말 에

하루의 끝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스트라스필드 메리튼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
SHOP 121/20-34 ALBERT ROAD, STRATHFIELD

시드니 최고의 요지 '로즈' 신규분양 판매 임박

로즈 Rhodes 최상의 건설품질! 마지막 프라임 로케이션!
평생 워터뷰 & 시티뷰, 독보적인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1,2,3 베드 평생 워터뷰 문의요망

빌버지아 건설사 | 인스펙션 상담문의 **윤호인 0415 007 109**
틈새일즈 에이전트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HOME LOAN CENTRE

LoanCare Homeloans FBAA M-326343

이자율 비교! | 정확한 조인! | 빠른 승인!

필요할 때 힘이되는 **용자전문가**

- 01 주택용자 up to 95%
- 02 자동차 & 장비 어디서 사든 가능
- 03 Private Lending (2nd Mortgage도 가능) \$50,000~\$3M까지
- 04 상업건물 up to 75% (Lo Doc 70%)
- 05 Lo Doc (No Tax Return) up to \$2.5M
- 06 Business & Construction Loan

M. 0421 578 822 E. linaleeau@gmail.com
8A, 38 Rowe St, Eastwood DIRECTOR: Lina(Sang Rye) LEE

Little's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NO WIN
NO FEE

무료상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연금보험
- #공공장소사고
- #개인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진 변호사
0408 249 334



안가희 변호사
0408 632 333

재활 및 의료비용 | 주급 손실 | 심각한 상해시 일시불 배상금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 '압도적 과반'으로 정국 주도권 '유지'... 국민의힘 3연패

지역구만 161석으로 단독과반 연속 달성... 윤 정부, 국정동력 타격 '불가피'

4월 10일(수) 치러진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98%를 기록한 11일(목)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동작을을 탈환하고 마포갑과 도봉갑

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1석이라는 성적표에 빛이 바랬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과 세종은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다 다소 늘었지만, 민주당에 견주기는 어려운 규모다.

이밖에 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



10일 저녁 투표가 마감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11일 오전 5시 현재 약 87%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41%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은 26.40%, 조국혁신당 23.83%, 개혁신당 3.5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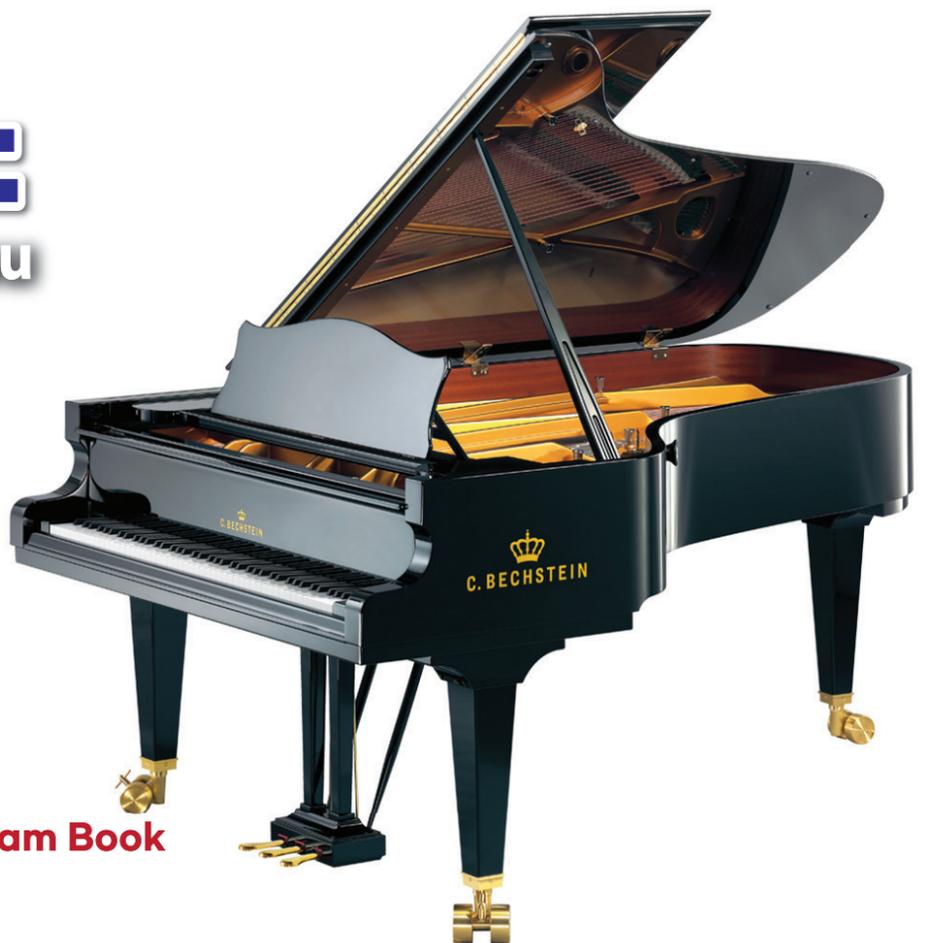
국민의힘 입장에서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 30면으로 이어짐

피아노의 명가(名家)

가스펠피아노
 www.gospelpianos.com.au

C. BECHSTEIN 벅스타인	Wm. Knabe & Co. 크나베
W. HOFFMANN W.호프만	KOHLER & CAMPBELL 컬러앤캠벨
SEILER 자일러	KETRON 케트론(이태리)
Roland 로렌드	CASIO 카시오
YAMAHA 야마하	KAWAI 카와이



- Pianos
- Keyboards
- Digital Piano
- Ukulele
- Guitar
- Flute
- AMEB Grade Exam Book
- Lesson Book 교재
- Organ

가스펠 피아노사는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키보드 등을 직수입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대 새 피아노 & 중고 피아노 총판매장

CLYDE | 35-37 Parramatta Rd
PH 9724 2022

RYDE | 231-235 Blaxland Rd (Cnr Lane Cove Rd)
PH 9809 5000 일요일 오픈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4월 9일(화)부터, \$340 a week 청구 가능... "시드니 서부 운전자들, 혜택 많을 것"



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된 통행료 환급 신청이 4월 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이용 대상 도로 중 하나인 Sydney Harbour Bridge의 e-tag 지점. 사진: Cosmos Archaeology

NSW 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도로 이용료 환급이 4월 9일(화)부터 시작됐다. 주 정부의 통행료 경감 계획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할 수 있는 하이웨이 이용 운전자는 주(a

week) 최대 340달러의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료 환급 계획은 현재 약 350만 명에 이르는 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지난해

주 선거를 앞두고 현 주 총리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당시 NSW 노동당 대표가 제시한 약속이었다.

주 정부 예상에 따르면 매주 통행료로 200달러를 지출하는 운전자는 이 계획으로 연간 7,280달러 정도를 환급받는다. 민주당 총리는 "현재 유료도로 이용료는 운전자들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할 만큼 부담"이라며 "이는 사실상(유료도로 이용이 많은) 파라마타(Parramatta) 서쪽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세금과 같다"는 말로 이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 통행료 경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 정부의 'Toll Relief Scheme'은 본래 NSW 개인 운전자

의 유료도로 이용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인 통행료 계정(e-tag)을 보유한 적격 운전자는 통행료로 한 주 최대 340달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는 개인 e-태그 및 차량 번호판(licence plate number)과 연결된 통행료로 매주 60달러 이상을 지불한 이들이다. 운전자의 통행료 환급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5일이다.

또한 적격 운전자들에게는 분기별로 40%의 리베이트도 제공된다. 청구되지 않은 분기별 리베이트는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누적된다.

▲ 적격 운전자= NSW 통행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NSW 주 거주자, NSW 주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한 이들은 누구나 통행료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유료도로로는 △Sydney Harbour Bridge, △Sydney Harbour Tunnel, △Hills M2 Motorway, △M5 South-West Motorway, △Westlink M7 Motorway, △Eastern Distributor, △Cross City Tunnel, △Lane Cove Tunnel, △Military Road E-Ramp,

▶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동철 변호사

한국 형사문제 도와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황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호주로 와 기소 중이나 유예 등의 상태로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형사 분야에 전문 베테랑 한국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실 때입니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 회사/비즈니스/개인 관련 소송 등 제반 분쟁 해결
- 비즈니스 매매, 주류라이선스, 리스 등
- 주택, 상가 매매 및 부동산 개발
-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분쟁
- 유언장 작성, 유산 집행 신청, 법적 대리인(POA) 지정
- 투자, 사업, 창업, 학업, 취업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이민법 서비스

- 사업 및 투자비자, 이민/취업 고용 비자, 이민
- 점수제/주정부/지방고용주 기술비자/영주권
- 가족이민(결혼/부모/자녀 초청)
- 종교인 비자/Labour Agreement
- 재심/장관탄원/연방법원 제소
- 코로나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면제 신청

노터리 퍼블릭/서류작성 서비스

- 노터리 퍼블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정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편지, 이메일 작성 대행
- 각종 신청서류 (연금, 수당, 보험금 등) 작성 대행

0412 779 281



카카오톡 아이디 : doota21

이메일 echolawyers@outlook.com

주소 Suite 16, Level 2, 10 East Pde Eastwood NSW 2122

ECHO
LAWYERS



호주 유일! 15년 경력
CEC 호주정부 승인

태양광 솔라 설치 전문업체!

EOFY 회계년도 마감까지

D-10 Weeks!

25년 패널 제품워런티 & 30년 패널 성능 워런티 제공



4월 특가
할인중!

AUS Solar Energy Group은
고객님과 약속합니다!

1. 10년 이상의 확실한 워런티 보증 서비스
2. 호주 유일 13년 경력의 CEC 정부허가 보유 업체
3. Aus Solar 소속 설치팀 & 전기공 사용 (하청업체 사용 X)
4. Roof 지붕 워런티 보증 서비스 완벽제공

타업체가 CEC 정부승인 & 13년 이상 경력 업체일시,
솔라 설치비용 타업체와 가격 비팅 가능 !!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정용 솔라 시스템

6.6KW 태양광 시스템 **\$4,090** (inc Gst) or **\$356.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10.37KW 태양광 시스템 **\$6,090** (inc Gst) or **\$522.82** / 12개월 무이자 할부

13.3KW 태양광 시스템 **\$7,390** (inc Gst) or **\$631.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상업용 솔라 시스템

20KW 이상 PPA 솔라계약 가능
0 upfront payment

- 5년 파이낸스 할부 가능합니다.
- 7.8KW 솔라 설치도 가능합니다.
- 솔라 배터리 추가설치도 가능합니다.
- 현재 있으신 태양광 솔라 점검 & 수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Sales & Marketing Manager
Oliver.kim@aussolarenergygroup.com.au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김성호 변호사

TALK KNA1805

MALINGERING

폐병이다. 풀같은 단잠에 빠져 등교를 거부하는 귀여운 아이의 변명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한 선의의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로 구분되는 폐병이다.

호주에서 일반인들은 malingering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이민생활 수십년에도 들어보지 못했을 영어 단어이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보험제도 선진국인 호주에서 상해보상이나 교통사고 보상업무도 중 가끔 등장하는 단어다. 보험회사 직원들에게야 낯설지 않겠으나 변호사들은 교과서나 강의에서 종종 듣는 단어일뿐 실제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각종 상해건에서 이러한 폐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수십 만불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연기뿐 아니라 일상이탈을 강행하는 의지적인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보험사기 관련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많다고 한다. 상해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보지않고도 서류상 눈에 띄는 유형들로 의심의 대상이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몰래 카메라 영상자료를 만들곤 한다. 만일 교통사고 보상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나를 염탐하고 있을것이라 가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호주 형사절차에서 철저히 적용되는 무죄추정 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보험회사들이다. 그렇다고 malingering 청구자들을 처벌하는 보험회사나 판사는 극히 드물다. 마치 인간은 용서의 대상이라는 무언의 원칙도 가지고 있듯이.

고층건물 건설 현장 7층에서 떨어진 5kg 콘크리트 조각을 머리에 맞아 안 전모가 두동강 났으나 그야말로 머리 카락 하나 다치지 않은 의뢰인이 뇌손상 연기를 시작했다. 의뢰인 편인 변

호사는 완전히 속았고, 의사들은 가우뿔, 보험회사에서는 100시간 분량의 몰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수백 만불을 기대했던 의뢰인은 몰래 카메라 영상을 변호사들 앞에서 관람해야 하는 수모를 겪은후 기대를 접어야 했지만 보험사기 형사 고소나 처벌은 없었다. 계리사 위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는 과심죄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한 후 malingering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합의취소 소송을 시작할수도 있다. 역시 철저하게 돈 회복을 목적으로한 소송일뿐 형사처벌 소송은 아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Malingering 행위에 동조할수 없을뿐 더러 알게된다면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변호사의 거짓말은 변호사 자격증 박탈을 가져오기에 그렇다.

최근 NSW 주 대법원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로 Honesty,

Integrity & Commitment to Justice 를 꼽았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말에는 Integrity 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고 하신적이 있다. '사실' 이 모자라 '팩트' 를 사용하는데 Integrity 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



KIM & ASSOCIATES
Solicitors and Barristers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고객님에 의한, 고객님을 위한

용자 상담인이 되겠습니다!



Miracle Financ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고준서 드림 -

 주택용자
- 첫 주택구입
- 투자
- 재용자

 상업용 건물 용자

 자동차, 장비 용자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Cash

Rate 이 2023년 11월 7일 0.25% 올려서 **호주 중앙은행**

Cash Rate 은 4.35% 가 되었습니다.

RBA의 이자율 변동을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info@miraclefinance.com.au 이나

전화번호 **0408 815 816** 으로

정확한 영문 Spelling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월 RBA 이자 변동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용자 이자율을 확인하셔서 Update된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 하시어 현금 보너스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매월 상환되는 이자금액을 절약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ustralian Credit Licence Number:388928
ACN:135 113 594

MFAA Full Member 55117



Mob. 0408 815 816 / Ph. 02 8068 4168

1085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승승장구 뺏어나가는 HB Group에는 **HB Telecom**, 주식회사 **한진 IT**, 대규모 물류회사 **한진운송**, **HB Education College**, **HB Music College**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 서버 (AD, Exchange, DB)
- 네트워크 (WAN, LAN, VPN)
- Virtualization (vmware, Hyper-V)
- Security, Monitoring, Support
- Cloud Computing, Thin Client
- 도메인, 호스팅 (자체 서버 보유)



시드니대학에서 (Adv) Comp Engineering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호주 현지 대기업(HP, IBM)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분야별 전문 IT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한진IT



한 안토니오
Manager

it@hanjin.com.au / www.hanjin.com.au

02 8064 7466 / 070 7899 4400

HB Telecom

info@hbtelecom.com.au

02 8090 4490

070 7899 4400



사무실 전화 시스템

최고의 IP-PABX 장비

깨끗한 음질의 VoIP 서비스

한국 070 전화 (자체 서버 보유)



정식이사보험 가입업체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일반이사/해외이사/택배 최다차량 보유 8대

7개 라인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SPECIAL SALE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02 9648 2424

- 21년전통 최우수회사
- 가장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 고객만족도 100%
- 호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한진!!
-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한진!!



대표 허요셉
(경영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

한진운송만의 특징

1400㎡ 가 넘는 대규모 시큐리티 창고건물
호주정부에 세금많이 내는 카운슬 정식허가 등록 물류회사

0431 24 24 24
070 7899 4444

23-25 Byrne St.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HB Music College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HB Music College 콩쿨 준비중~

본 음악원은 2004년에 오픈하여 그동안 승승장구 발전하며 분원까지도 Full lesson 예약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음악인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음악원 및 하이스쿨에서도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며, 특히 많은 학생들이 Music Diploma 획득 및 Music Scholarship를 받은 큰 성과를 거두는 음악원이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21년째 맞이하는 음악원 오픈 축하 기념으로 Big Competition"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과목 HSC / 대학입시 / 각종 콩쿨 및 Music scholarship 준비생 / 음악영재 / 일반학생 (피아노,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 첼로, 음악이론, 작곡,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성악)

☆ 원장 음악석사 허마리아 0433 534 881 | Tim Director (시드니콘 석사,박사 0430 054 476) | International Violinist 허 난

☆ 주소: 13 Abbotsford Rd Homebush (스트라스필드 도서관 옆) | ☆ 주소: 18 Abbotsford Rd Homebush (분원)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2022년 12월 도입된 전기료 보조금, 일반 가구 및 small businesses 대상 확대



2024-25 회계연도에도 각 가구 및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사진) 총리는 이달 첫 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진: Sydney Morning Herald 뉴스영상 캡처

높은 전력 가격으로 호주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 계획에서 이 부문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고 스몰 비즈니스에도 추가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첫 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미디어 브리핑을 통

해 2022년 12월 도입된 에너지 사용료 보조금이 각 가구와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임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력가격 급등 후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와 공동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는 올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4일(목) 알바니스 총리는 브리핑에서 “각 가구와 소규모 패밀리 비즈니스의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난해 예산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전제한 뒤 “이는 높은 생활비 압박을 받는 이들,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서 “5월 발표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도 호주인 가구와 소규모 업체들이 지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한 보조금 패키지는 약 100만 스몰비즈니스 및 500만 가구에 최대 65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주 스몰비즈니스 협회 CEO인 ‘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는 알바니스 총리의 계획에 “500만 명 이상의 가구 및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지원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알바니스 정부는 또한 다음 달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두 번째 연속된 흑자 예산과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피하면서 생활비 부담 완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비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를 채택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규모 업체들이 비용 관리를 위해 태양

광 발전 설비 수용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다”고 언급한 총리는 “오늘날 스몰비즈니스 3곳 중 거의 1개 업체가 옥상 태양광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5명 중 1명은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환경적 책임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마지막 주(28일), 알바니스 총리는 NSW 주 헌터벨리(Hunter Valley)에서 태양광 패널의 국내 생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파이낸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키워가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처음 용자에서부터 용자 관리, 투자로 이어지는 자산 운용에서 하이홈론 파이낸스가 당신의 행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 고객을 위한 주택용자 상담
- ✓ 용자금에서 추가 Cash Out
- ✓ 재용자 Cash back 리베이트를 찾아 드립니다
- ✓ 초보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 ✓ Property Report 무료 제공



MFAA APPROVED CREDIT ADVISER
MFAA No : 156882

Credit Advisor **장현철 0430 421 115**

Suite 16, 10 East Parade, Eastwood, NSW, 2122
Homepage: www.hihomeloan.com.au
Email : hcchang@hihomeloan.com.au

고향에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우시죠 ?

호주 온돌 보일러 전문가

KOREA BOILER에게 맡겨주세요!

신축공사, 레노베이션, 그레이니 플랫 건축에도 따뜻한 온돌방 설치는 기본입니다. KOREA BOILER의 모든 보일러는 24시간 365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USPA 명품 온수 매트 판매!

포근하고 따뜻한 HUSPA INVERTER 잠자리를 디자인 하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휴스파 온수매트

공통구매 환영

2024년 최신행 명품 온수매트 판매중!



퀵, 싱글매트 자가드 침대원반



디지털 온수 보일러



거실용 모노룸 온수매트 세로 1830 mm 가로 2300 mm 특대 사이즈

휴스파 호주총판에서 최고급 품질의 온수매트를 최저가로 구입하세요!!



- 전자파 NO
- 난방비 절감
- 소음 NO
- 안전성 OK
- A/S OK
- 착한가격 OK
- 스마트 절전난방 인버터 기능
- 초저소음 특허기술 BLDC 펌프
- 내구성 UP 세라믹 샤프트
- 생활방수 진드기방지 항균매트

온수판넬형 (부분 판넬형)

오랜 전통의 한국 최초 정왕사 전기온수 보일러

사용 중이신 온수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거나 녹물이 나오나요?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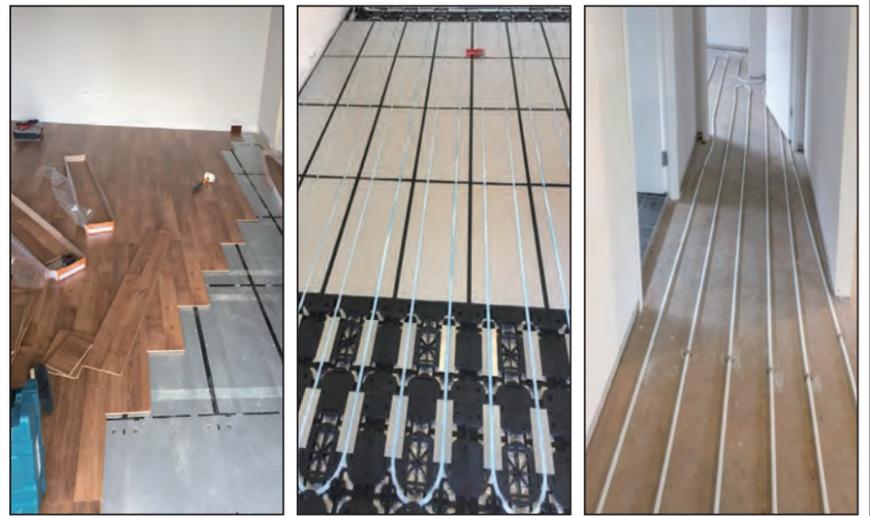
녹물이 나오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동파이프 판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타사 전기온수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온수보일러 화장실 바닥, 샤워장 바닥 온수설치

마루바닥, 타일바닥, 카펫바닥, 시멘트 바닥등 어느 곳에서나 설치 가능



방송인 이상벽이 선전하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선착순 20명, 마지막 20대 한정!!

- 골프를 치고 뒷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과체중으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
- 등산할 때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힘드신 분
-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 분
- 쾌변이 어려우신 분
- 오래서 서 일하시는 분



정확한 사용법은 "누운상태에서 사용해야" 뚜렷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EST CHOICE



태일 전기온돌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보일러가 필요없으며, 방바닥을 뜯지않고,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1억원 보험 가입

간편한 시공! 마루, 타일, 카펫등 어느 곳이나 단 30분만에 시공 가능합니다. 안전 검증! EMI, EMS 승인을 거친 전자파 시험필 제품입니다. 간편하고 실용적! 이동이 간편한 병풍식 구조 및 초절전형 시스템 철저한 AS소음! 걱정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IN HYUK PTY LTD

주문 및 시공 바닥 레노베이션 전문 온돌 마루시공
태일전기/정왕사/HUSPA보일러 호주총판 웰빙온돌사업부

121 Darvall Rd, West Ryde / E. ondol_bang_@hotmail.com T.02 9787 2124 M.0410 408 814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북한 이탈주민들, 한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서... 탈북민 정착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 밝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마련한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가 끝난 뒤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평화적 통일 의지를 다지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평통 호주협의회

북한 이탈주민과 호주 동포들이 한마음 되어 통일의 불씨를 담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불렀다. 지난 4월 6일(토)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열린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애타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쿠니즐랜드 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가족 25명을 비롯해 고상구 아태지역회의 부의장, 이숙진 운영위원, 이경진 동남아서부협의회장, 이광일 서남아협의회장을 포함한 평통 자문위원 및 시드니 각 단체 인사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은 모든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미래"라면서 "탈북민 형제자매들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 사이를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한마음 축제는 "호주에 있는 탈북민과 교민들이 음식과 놀이와 음악을 통해 한민족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라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열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용 평통 수석부회장은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든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자유를 향한 용기에 가족처럼 따뜻한 포용과 멘토 역할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상구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은 "자유의 품에서 희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가 바로 통일과 통일 이후의 화합을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며, 이숙진 운영위원은 "북한 주민들이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북한 인권 NGO 활동을 지속해 온 김태현 호주협의회 자문위원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특강을 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북한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북한 동포들의 곤경을 더 오래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통일을 지

연시킨다"면서 "이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재호통일가족 한마음 음악회'에는 중창, 악기, 독창, 남성중창, 밴드, 합창 등의 순서가 마련돼 동포들과 탈북민 어린이들이 남북한 동요를 함께 부르는가 하면 탈북민 최금화 씨가 장윤정 가수의 '초혼'을 구성지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호주 교민과 탈북민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홀로 아리랑'을 합창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아오지'를 탈출한 후 대한민국을 거쳐 호주에 정착해 다른 이탈주민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는 최금영 평통 자문위원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KBS 방송국의 '인간극장' 제작팀도 참석했다.

또한 호주 국영 SBS 방송국이 취재팀을 보내 이스라엘-가자, 중국-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분란의 시대에 남과 북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라이드(Ryde) 기반의 조던 레인(Jordan Lane) NSW 하원의원은 "다문화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탈북민 호주 취업 및 유학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탈북주민 멘토로 알려진 최금영 자문위원과 협력해 호주협의회는 오는 6월부터 1년간 탈북민을 위한 초기 정착 안내 및 숙박지원, 구직 지원, 호주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1:1 멘토링, 유학생 장학금, 동포사회와의 소통 기회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사/평통 호주협의회

CANADA BAY CLUB **STANMORE MAZDA**

DINE, CASH, CAR

\$64,000 가치의 현금 및 상품

매일 티켓을 모아서 당첨의 기회를 누리세요!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	매인 추첨
\$1,000 다이닝 바우처	\$5,000 현금 상품	MAZDA2 27,000불 상당
매주 월요일마다 10개 x \$100 추첨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피닉스 중국 요리 다이닝 바우처 획득 \$7,000 전체상품, 70명의 행운의 승자	매주 수요일마다 \$5,000 추첨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2024년 4월 8일 수요일 2개 x \$1,000 & 12개 x \$300 현금 획득 \$30,000 전체상품, 18명의 행운의 승자	매주 월요일마다 10개 x \$100 추첨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추첨 2024년 마즈다 2 G15순수 오토매트 해치백 획득 \$27,000 상당의 상품

참가 응모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매일 티켓을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 추첨용 컨테이너에 넣어주세요. 모든 티켓은 매 주 수요일 밤 현금 추첨 후 주요 상품 컨테이너로 이동됩니다. 적용되는 조건 및 계약이 있으며, 프로모션 약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접수처를 방문하세요.

특별한 것이 곧 찾아옵니다...
5월 중순에 캐나다 베이 클럽에 피닉스 중국 레스토랑이 오픈됩니다.

CANADABAYCLUBFIVEDOCK **CANADABAYCLUB.COM.AU**



호주 뉴질랜드 비즈니스 매매 경력 20년

비즈니스 매매 공인중개사 | Hannah Ahn 한나 안
E. hannah@sbx.com.au | M. 0402 681 035



Tel. 1300 366 655 | A/h. 02 8819 6703 | Fax. 61 2 9439 5944 | Add. Suite 1, 2, 2-4 Pacific Highway, St Leonards Sydney 2065 NSW, Australia

비즈니스 매매 에이전트 35명으로 구성된(중국인 브로커 6명 포함),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매매 전문회사입니다.

1	중국식당 (한인 밀집 지역) "New", "추천매물"	Price \$129,000 매출 \$21,000/주 순익 \$50,276/월	한인들 많이 거주하는 동네 중심 대로변, 카페, 레스토랑 거리에 위치한 매우 성업 중인 중국 식당입니다. 현재 가게 주인 한국인이며, 순익은 직원 없이 가족 운영(4명) 순익입니다. 시설 매우 잘되어 있으며 특히 냉장고, 냉동고, WOK 등등 부엌 설비 최상이고요. 플트레닝 하여주며 매출 POS Machine 에 확인 가능해요. 가족 혹은, 파트너로 운영 경우 비슷한 금액의 순익 확실한 비즈니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2	Sushi Takeaway / 일식당 (Mana Vale 지역) "New", "추천매물"	Price \$190,000 매출 \$15,000/주 순익 \$22,000/월	1998년에 오픈한 오랜 전통의 유명한 수시 테이크웨이/일식당 입니다. 면적 75sqm, 좌석 34석의 적당한 규모의 일식당. Full commercial kitchen 시설되어 있으며 면적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높은 순익의 일식당.
3	Gong Cha (Ashfield 지역) "New"	Price \$80,000 매출 \$9,800/주 순익 \$16,500/월	맛있는 건강음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famous pearl milk tea, taro milk foam smoothies, matcha red bean, milk tea with grass jelly 등등. 현재 호주 전역에 1600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으며, 가게 내 매출 \$8,300/주, home delivery \$1,500/주 입니다. 현 위치 10년 영업, 위치가 매우 좋아요.
4	Tea house / Cafe / Takeaway (Caringbah 지역) "New"	Price \$280,000 매출 \$20,000/주 순익\$14,400/주	Tea and coffee house selling 커피 판매 30kg/주. All day breakfast, lunch menu and home made cookies. Dining and picnic boxes. 실내 52석, 실외 10석. 분위기 있는, 카페. 면적 140sqm,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결혼식 피로연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음. 현 위치 20년 성업 중인 알짜 현지인 카페.
5	타이 레스토랑 (Northmead 지역) "New"	Price \$90,000 매출 \$7,100/월 순익 \$8,400/월	현주인 타이레스토랑으로 운영 중, 수시 테이크웨이/일식당으로 전환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좌석 - 실내 22석, 실외 10석 주류 라이선스 (STA), Grease trap 있고, 공용주차장에 인접해 있음.
6	옷 가게 (한인 밀집 거주 쇼핑센터 내) "New", "추천매물"	Price \$65,000 임대료 \$903/주 순익 \$11,100/월	한인들 주거 많은 지역 쇼핑센터 내 위치한 적당한 규모의 옷 가게. 여성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취급 중이며 새 주인 다른 품목 취급도 가능함. 간이 부엌시설 갖추고 있고, 현주인 26년 꾸준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안정적 비즈니스. 여자 친구분 두 분 교대로 일하며 짝짤한 순익 가능한, 아이디어 많은 비즈니스로 추천합니다. 목이 좋고 (쇼핑센터 입구) 크기가 적당해서 옷가게 아닌 다른 업종도 센터 승인 후 가능해요 - 회계사 사무실, 마사지,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등등)
7	대형, 럭셔리한 일식당 (Wentworth Point 인근 지역) "New", "추천매물"	Price \$659,000 매출 \$45,000/주 순익 \$51,248/월	신선한 일식 재료들 사용으로 매우 성업 중인 일식당입니다. 인테리어 엄청 잘 되어 있고, 좌석 84석, 면적 280sqm. 쇼핑센터 푸드코트 내 레스토랑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일식당 운영 경험 있는 부부 혹은 파트너 운영에 적합하며 주류 라이선스 보유, 대부분 로열 고객층으로 일인당 소비 금액 높아요. 현주인 38년 동종업종 근무로 Retire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8	Convenience Store / Asian Groceries (Strathfield 인근 동네)	Price \$280,000 매출 \$22,000/주 순익 \$23,900/월	레스토랑, 그로서리 숍, 카페, 옷 가게 등등 밀집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103sqm + 53sqm 의 적당한 규모의 아시안 그로서리입니다. 최근 주류 라이선스 취득으로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게 주변 아파트 밀집 지역. 마진 높은 슈퍼마켓. 마진 매출의 47%.
9	카페 (Lidcombe 지역) "New", "추천매물"	Price \$119,000 매출 \$10,000/주 순익 \$11,000/월	레스토랑, 카페, 슈퍼 등 리테일 숍들 즐비한 대로변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 산뜻하게 가게 내 레노베이션 했고, 쿨링 후드 설치 중이며, 매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순익은 매니저 운영기존. 새 주인 부부가 운영 경우 더 높은 순익 가능한 운영 간편한 카페. Hot food lunch menu 추가 경우 더욱 매출 높아질 수 있는 잠재성 많은 카페. 좌석 22석.
10	주유소+ 슈퍼 (Ashfield 인근 동네) "New"	Price \$495,000 매출 \$144,838/주 순익 \$13,400/월	차량 유동 엄청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달 주유 판매량 300,000 리터. 슈퍼 매출 \$55,000/월 - 마진 매출의 35%. 6 Bowsers 에 주입구 24개의 규모. - E10, 91, 98, 취급. 주유, 슈퍼 판매 이외에 Petrol company로부터 연간 \$28,000 추가 보너스를 받음.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11	Sushi Takeaway / Sushi Train (Northern Beach 지역) "New"	Price \$168,000 매출 \$13,000/주 순익 \$17,000/월	시설 매우 잘 되어있는 수시 테이크웨이/ 수시 트레인입니다. 손님 대부분 로컬 고정고객이며 여러 맛의 수시 롤들과, 니기리, 템푸라, 핫푸드, 벤토 등등 운영 쉬운 메뉴들로 트레닝후 누구나 운영 가능한 안정적 비즈니스. 현주인 주 6일 영업, 주류 라이선스 보유, 좌석 30석의 적당한 규모의 수시가게. 훔딜리버리 시작 경우 더욱 좋을 수 있으며, 면적 180sqm 의 아늑한 분위기의 수시 트레인.
12	카페 / 테이크웨이 (Petersham 지역)	Price \$380,000 매출 \$20,000/주 순익 \$16,800/월	Classic Style Cafe with Vintage decor with a total area of 120sqm. 한주 커피 판매 30Kg, 좌석 54석, 분위기 있고, 인테리어와 메니즈먼트가 훌륭한 카페입니다. 현주인 10년 이상 운영 중이며 고정 고객들로 늘 수입 안정적 비즈니스.
13	카페 / 테이크웨이 (Woollahra 지역) "New", "추천매물", "특매물"	Price \$95,000 매출 \$18,000/주 순익 \$8,400/월	High volume coffee sales 40Kg/week, 좌석 36석, 현 위치 20년 전통의 매우 안정적, 많은 인근 주민들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카페. 분위기도 좋아요. 현재 주인 일하지 않고 직원들만 운영 중이어서 임금 지출이 매우 높아요 (\$7,000/주) 카페 운영 경력 새 주인 부부 혹은 두 파트너 근무 경우 순익 좋고 안정적 비즈니스입니다.
14	세탁소 - 드라이크리닝 (Winston Hills 지역)	Price \$99,000 매출 \$5,000/주 순익 \$12,000/월	현 위치 40년 넘게 운영한 잘 알려진 세탁소입니다. 드라이크리닝 겸하고 있으며 기계들 (Nova 350E, Union Dry Cleaner Machine, Puff Iron, Boiler, Presses Table, Dry only Machine, Domestic Wasing machine, Spotting Table, Sewing Machine, Hemming Machine, Overlook Machine 등등) 갖추고 있음. 인근 지역 경쟁업소 없고, 면적 45sqm의 적당한 크기의 업소.
15	콩나물재배 / 두부 공장 (약간 서부지역에 위치) "New", "급매"	Price \$189,000 임대료 \$1,190/주	현대식 공장 지역 내에 위치한 모던 스타일 공장. 면적 200sqm (Ground floor 160sqm, Mezzane-사무실 40sqm) 콩나물 재배와 두부 만드는 시설 모두 갖춘 신설 4개월 공장. 주인 건강 문제로 "급매" 원함. 대형 쿨링, 냉동고 갖추고 있으며 Exhaust system (후드- 10칸) 설치되어 있고, Grease trap (기름 거르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쿨링 가능. 한국 음식 식품 제조 및 슈퍼 등에 납품 겸하여 가능. 콩나물 재배와 두부 제조 노하우 모두 전수/ 트레닝 해줍니다.
16	시설 잘되어 있는 목이 좋은 아시안 슈퍼마켓 (Northern Beach 지역)	Price \$179,000 매출 \$10,000/주 순익 \$13,700/월	쇼핑센터내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시설 잘되어 있는 아시안 슈퍼마켓입니다. 한국, 중국, 타이, 인도네시아 식품 취급하며 면적 161sqm, 냉장고, 냉동고 시설 매우 잘되어 있고, 주인이 직접 운영 경우 매출 증가 확실한 잠재성 많은 슈퍼마켓입니다.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17	매우 성업중인, 유명 한식/ 고깃집 레스토랑 (Inner west 지역) "New", "특매물"	Price \$349,000 매출 \$29,500/주 순익 \$32,000/월	상호를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맛집으로 유명한 한식 BBQ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카페 즐비한 먹거리 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80sqm, 좌석 100석의 상당히 큰 규모의 레스토랑. 고객들 주로 자주 오는 단골손님들이며, 주류 라이선스 보유, 장기 임대,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순익 높은 비즈니스. 가족 운영 혹은 부부 운영에 최상의 비즈니스. - 현주인 쿨링(일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18	The Coffee Club 프랜차이즈 카페 (North West Sydney 지역)	Price \$475,000 매출 \$35,000/주 순익 \$22,700/월	초 대형 쇼핑센터내 코너위치. 하루 종일 쇼핑객들 붐비는 목이 좋은 위치에 면적 100sq, 실내 64석, 실외 60석의 매우 훌륭한 시설의 프랜차이즈 카페. 한주 커피 판매 32Kg, 현주인 16년 운영 중. 잘 알려진 카페 체인점으로 카페 운영 처음인 바이어에게도 본사 트레이닝후 운영 가능함.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학생비자 설계한 전 이민국 간부, 'Frankenstein's bride 시스템' 중단 촉구



연방정부가 국제학생 비자 처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올 2월까지 지난 6개월 사이 학생비자 발급은 8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이 위험도가 낮은(학업 목적보다는 호주에서의 노동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는) 대학 지원자에 대한 비자처리를 우선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전략을 입안할 당시 학생비자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이민부 고위 간부가 “학생비자 발급 제도의 실제 의도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각 대학의 국제학생 제한

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유학생 제공업체에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 손실을 초래하는 ‘프랑켄슈타인 신부’ (Frankenstein's bride.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연인 또는 의도된 연인으로서의 상징) 시스템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국에서 이를 담당했던 전 고위관리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씨는 “새 비자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인 대학 ‘위험 등급’ (risk ratings)은 정부가 이민 단속에서 특정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학생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위험 평가 시스템이 본래 의도에서 ‘프랑크슈타인의 신부’와 유사한 것으로 변모돼

더 이상 애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찰스 스투어트대학교 부총장인 그는 지난해 12월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연방 내무장관이 정부 관료들에게 “덜 위험한 대학의 학생비자 처리를 우선하라”고 지시한 이후 자신이 입안한 학생비자 간소화 체계는 사용 기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는 고등교육 부문 전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상당수 대학들이 국제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증거 수준(evidence levels. 임상시험이나 연구를 통해 측정된 결과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순위 시스템)으로 알려진 위험 등급은 특정 국제학생 대행업체, 비자취소가 많은 사례자의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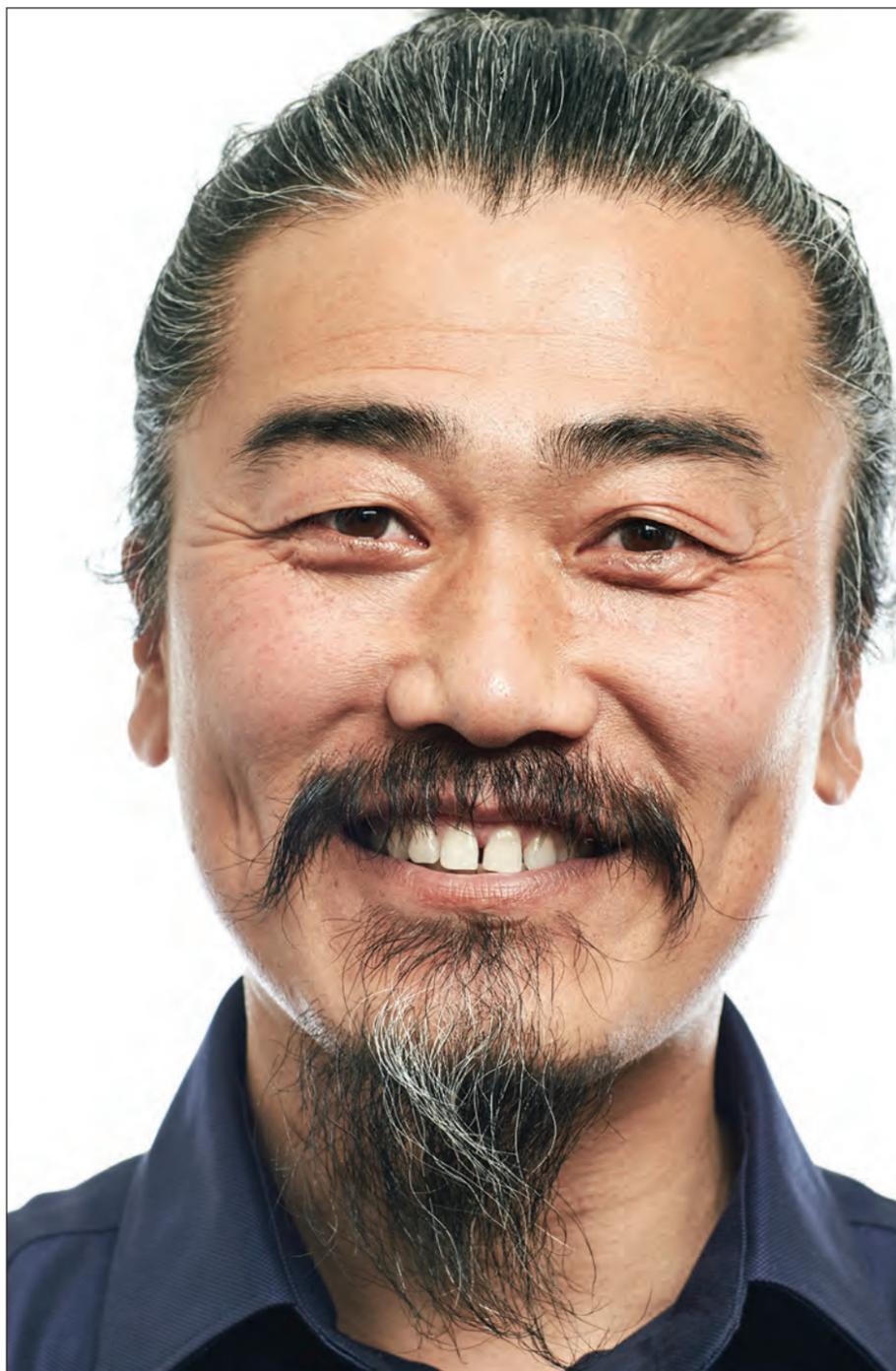
신 국가, 비자거부 횟수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달 첫주, 내무부가 실시한 이 위험 평가 개편을 보면, 1등급(first-tier)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10개 대학은 핵심 수입원인 유학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들은 오닐 장관의 지시(덜 위험한 대학의 학생비자 처리 우선) 이후 첫 2주 동안의 데이터(학생비자 거부 사례)를 기준으로 순위가 하락한 114개 교육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47개 기관은 순위가 상승했다.

▶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800 858 858

저의 인생을 바꿔준 전화번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도박을 너무 자주하시거나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도박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고있는 것 같다면, GambleAware 에 전화해서 **한국어**로 주 7일, 24시간 **무료로 비밀 상담**을 받으세요. gambleaware.nsw.gov.au/korean 를 방문하세요.

GambleAw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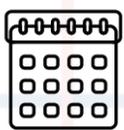


little scribblers

EARLY LEARNING CENTRES

Ashfield Open Day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지금 종일반에 등록하세요.
첫 2주는 무료입니다!



Saturday, 13th April 2024
09:30 a.m. - 12:30 p.m.



181 Elizabeth Street,
Ashfield, NSW



"상상 이상의 교육"

교육자와의 만남

BBQ 바베큐

페이스 페인팅

활동수업

미술 & 만들기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밍밍한 정치

대한민국 22대 총선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이 190석 가까이 획득한 압도적 승리다. 정권심판론 태풍이 세차게 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망한 200석은 달성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특검법을 만들고 탄핵과 개헌을 발의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초유의 드라마는 꿈으로 남았다. 대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남은 집권 3년 정국을 주도한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어느 쪽도 절대 반지를 거머쥐지 못한 만큼 대화와 타협이나 대립과 갈등이냐는 갈림길에서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총선에서 자신을 결사옹위할 친위세력 육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천 잡음을 감수하고 대쪽 물갈이를 통해 '친명(친 이재명)' 위주의 민주당 원내 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한 이재명 대표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등 대통령에게 토크를 받은 서사를 가진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생환했다. 차기 당권과 대선을 둘러싸고 여권의

권력추가 이들에게 급격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여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국회 당 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성을 당선은 태풍의 진원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분 쪼은 층이 다수인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벌어진 3과전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서사로 극적 역전승을 거두었다. 대통령은 물론 거야 민주당에 대해서 일전을 겨룰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를 통해 정부여당을 직격할 태세다. 선명한 정권심판론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룬 조국혁신당이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야 공격의 선봉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차피 200석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는 성과는 있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야권 성향 지지자 확보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대 야권을 이끄는 두 지도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고롭게 둘 다 형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선거기간 중에 법정에서 출석해야 했다. 민주당이 독자 과반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완벽한 방탄체제' 는 완성됐다. 그럼에도 사법리스크 자체는 계속된다. 조 대표 역시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곧장 감옥으로 가야 한다. 총선에서의 정치적 승리가 사법적 성과로 이어지지 주목된다.

윤 정부는 애초부터 거대야당과 함께 출범한 정부였다. 집권 후 2년 만에 치르는 총선은 엄밀하게 말해 대선 후반전 성격을 갖고 있었다. 집권 여당이 반드시 과반을 확보해야 비로소 정권교체를 내용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 참패로 윤 정부는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심판 받아 불구 상태로 잔여 임기를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숨만 쉬면서 내부에서 광합성 작용만 하는 '식물정권' 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최약체 정부가 무수한 오판과 실언으로 쌓은 오만한 이미지 때문에 폭망을 초래했다.

선거의 효능은 모든 정치적 논쟁과 대립에 한 매듭을 짓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현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기분 나쁨이 용광로가 얼어진 것처럼 총선판을 태워 버렸다. 정치의 금기와 금도가 무너졌고 여야 모두의 손에 회칼이 주어진 셈이다. 극단적 진영 대립은 이들에게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상대의 목줄을 끊을 때까지 싸우라고 충동한다. 여기에 휘둘린다면 남은 3년은 오직 정치공방 대란에서 시작해서 대란으로 끝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권의 탄핵 저지선 확보와 야권의 200석 실패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독주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헌정중단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결론은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아닐까? 민주정

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대화와 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극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도무지 너무 미운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다.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대의정치의 명분이요 대의다. 미숙한 정신 상태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려 한다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나설 자격이 없다. 상대 진영을 거털 내는 '복수혈전' 이 아니라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내는 '민생안정' 이 진짜 정치 효능감이다. 후자는 그저 밍밍하게 맛이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희비극이다.



정동철 / 변호사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J.won Jewellery
 제이원 보석

www.jwondiamond.com.au

9763 135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플라자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Open Hour Mon-Fri 10pm~6pm
 Sat 10am~3pm

"백세까지 호호탕탕"

65세이상 시니어분들께 희소식 !!

호주 연방정부 지원 <백호대학> 2024 건강/복지 프로그램

- ✓ 1년 동안 전문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 ✓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즐기며 방학때는 단체여행도 함께 합니다.
- ✓ 야외활동, 문화생활 체험, 건강스포츠, 월별/학기별 이벤트, 연말 대잔치.
- ✓ 웰빙센터에서 황토찜질방, 자연산책, 수영, 테니스, 영화감상 등 가능.
- ✓ 몸이나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픽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노인연금(pension)을 받으시거나, 재산이 많은 분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백호대학 건강 데이케어

매주 화요일 버우드 RSL Club (96 shaftesbury Rd), 10am~2pm

1.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2. 취미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 버우드 미술반, 모발폰반 (화), 이스트우드 댄스반 (목)
3. 매월 특별활동 (하이킹/등산/낚시/소풍/영화, 전시회 관람/여행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4. 5월에 개강하는 2학기 부터는 탁구반, 테니스반이 신설됩니다. 신청을 환영합니다.

백호대학 홈케어 서비스

1. 1:1 개별 상담 및 케어 프로그램을 정기 스케줄로 운영
2. 보호자/가족들과의 정기 미팅을 통해 고객의 안전, 복지, 만족도 보장
3. 전문 서포트 워커들에 의한 철저하고 친절한 서비스
4. 회계사를 통한 안전한 펀드 관리
5. 먼저 상담을 거쳐 서비스동의서를 작성한 후 펀드관리 방식을 선택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서포트워커들을 통해 1:1 개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호대학 주간보호센터 (리스파잇 케어 서비스)

1. 시니어분들을 위한 즐겁고 편안한 사랑방, 행복한 대화와 만남
2. 참석 대상:
 - 하루 종일 집에서 홀로 계시고 사회적 교류가 어려운 분
 - 차량 및 교통 서비스제공이 어려워 바깥활동이 힘든 분들
 - 치매 혹은 다른 질병으로 홀로 지내며 외로운 분들
 - 정부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분
 - 한국 양로원이나 호주 양로원에 가입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분들
3. 제공혜택: 교통편 및 점심식사, 전문 간호사가 항시 대기, 전문 서포트워커들, 건강관리/질병예방/재활놀이/자연친화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자녀분들을 위한 상담 및 세미나: 상담은 전화예약 후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센터방문은 예약 필수

<백호대학>은 호주 비영리 복지단체 <GCMA 마이리버랜드> 소속으로 한인언론사 <한국신문>에서 주관하는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백호대학> 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자원봉사자
문의 환영

등록문의 0425 282 697 (이기태)



3BEAUTY HEALTH & WELLNESS CENTRE

3뷰티 건강증진센터

YOU BECOME HAPPIER & HEALTHIER

캔트허스트 소재 3Beauty 건강증진 센터는

전문 건강/의료팀이 각 **개인별로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의료 서비스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편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대면 진료/서비스 가능)

3뷰티 산후조리원

3Beauty 산후조리원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최고의 산후 케어 서비스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준비합니다.

- 1) 경력 산부인과 간호사와 유아보호사가 함께 하며, 응급시 GP 와 연결하는 응급지원 시스템
- 2) 한의사 및 운동관리사가 처방하는 산후보약 및 산후 회복운동
- 3) 전문 바디관리사에 의한 식단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 4)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독립 공간과 친절한 1:1 케어 서비스
- 5) 7천평 대지위에 잔디와 나무들로 구성된 자연 친화적 환경

3Beauty 부대시설

편백나무 황토 찜질방 / 야외 수영장 / 테니스 코트 / 골프 퍼팅 & 벙커 존 / 산책코스

NDIS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을 소개합니다.

본 센터의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NDIS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개인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능력 향상과 2차질병 예방을 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 당뇨, 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예방하고, 전문의료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개인별 운동처방, 식단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가능

- 장애 대리인들과의 정기미팅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 장애인 개인별 체형교정을 통한 성장촉진 및 통증완화
- 개별별 맞춤 운동처방 및 식단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 의료서비스 연계 - Therapeutic Service (Allied Health) 및 GP 소개

1) 장애인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영양/식사/체중 관리를 위한 준비, 자세/영양섭취/개별식단 상담, 자가체크 노트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 전문 운동처방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지도

3) 지속적 건강/질병예방 관리

단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NDIS 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

(2) NDIS Youth (금요일 저녁 ~ 토요일 오전)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마이리버 랜드 NDIS Youth 프로그램에 참여할 장애인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하이스쿨 학생 또는 만30세 미만의 학생들

금액: NDIS Fund 에서 지불

인원: 최대 8명 (별도 남/여 숙소)

Respite / SIL / Core support / Capacity building

서비스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상담, 문의, NDIS 관련 Consulting 을 해 드립니다.

[금요일 프로그램]

5 pm	센터 도착
5 ~ 6pm	개별운동처방 관리 및 식단관리 프로그램 점검 및 진행
6 ~ 7 pm	전문요리사가 준비한 건강식단 제공
7 ~ 9pm	다양한 ACTIVITY - 영화감상, 노래방, 게임 등등
9 pm	개인위생활동 후 취침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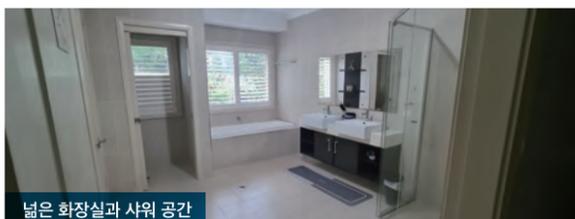
[토요일 프로그램]

8 am	아침식사 및 숙소 출발
8 am~ 1 pm	야외활동 프로그램
2 pm	귀가

+ 1:1 개인 상담 및 센터 투어 환영합니다 (예약 필수) +



여자 숙소



넓은 화장실과 샤워 공간



운동처방 및 운동실



남자 숙소



부엌과 큰 TV가 설치된 거실



영화 노래방

☎ 상담 문의 : 0430 903 930

TALK house9349

주소 : 1 Hazeldean Place Kenthurst

김삼오 칼럼

재외동포청장의 시드니 방문

해외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며 큰 기대를 모아 오던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 고국에서 작년 6월 설립)의 이기철 청장과 참모들이 해외 현지 탐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13일 시드니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이 방문 계획을 서울의 <세계한인신문> 보도를 보고 안 필자는 경고성 글을 그 신문과 여기 <한호일보>에 썼었다.

방문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시드니 한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니 여기 우리 대표들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교포신문 보도에는 청장과 수행한 국장이 한 발언 말고는 우리 쪽이 거론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경고성 글에서는 그간 필자 자신이 참석해봐 잘 아는대로 대개 100여명이 모여 의전 위주 행사가 되기 쉬운 이런 간담회에서 고국이나 한인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놓고 말로 문답하거나 건의를 해 봤자 제대로 파악될 수 없으니 재외동포정책 실무자들은 나와서 보고 듣기 보다 평소 현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건의서를 받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장과 시드니 간담회는

조금 지났다. 하지만 한인 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앞세우는 단체장들은 이런 이슈들을 어느 시점이 아니라 두고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성원 간 대중 메시지 전달이 어려운 게 현 한인사회의 실정이다. 아래 재외동포청장이 현지에서 발표한 새 정책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한국의 발전상을 호주의 교과서에 많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이청장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다. 동포청의 설립 이유는 그간 여러 기구에 분산된 고국의 대(對)동포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는 거라고 들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 사회에 알리는 이 업무는 기왕의 외무부 산하 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이나 해외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원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고국은 해외 교포언론사를 광고로 지원하고 매년 세계한인언론인대회란 이름으로 기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주체는 언론진흥재단이나 예산은 나라돈인데 앞으로 그대로일까.

교포 거주국 나라의 교과서에 고국의 발전상이

많이 실리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는 조용히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발표해도 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중국이 공자학원(The Confucius Institute)이란 연구소를 서방의 대학들에 설립, 재정 지원을 했다가 해당 국가들의 비난을 받아 지금은 모두 퇴출된 것으로 안다. 한호 간 관계는 우호적이어서 정부 레벨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론은 다르다. 2000년 초인가 시드니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할 때 호주 유력지가 대한민국이 커져 호수에 Soft Power(지적 또는 두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약간은 비아냥조로 썼었다.

각자도생

이청장은 동포청의 업무의 원칙으로서 교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현지에서의 지위 향상을 들었다. 이건 원래부터 고국의 재외동포정책의 2대 근간이다. 그건 일견 상호 이율배반이어서 쉽지 않으나 정책방향으로는 타당하다. 그런데 실재를 보면 유럽 등 서방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한인들은 정체성이 너무 강한 게 탈인테 지위향상이나 주류사회로의 통합은 반대다.

고국이 여기 교과서에 아무리 잘 반영되어도 현지 교민들이 잘 못하거나 함을 합치지 못하고 각자 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

간다면 현지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가 없다. 공부 잘한 2, 3세 한인들이 의사, 변호사, 기업의 간부 등 고급 직장에 취직을 하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전체 한인 인구에 비하면 소수다. 또 아직도 이민이 유입되어 1세, 1.5세가 이끄는 한인사회 전체가 그 사람들 소수의 덕으로 그냥 위상이 좋아지고 한인 다수가 겪는 애로가 덜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호주의 경우, 시민권자인 그들이 우리는 고국이나 코리아 커뮤니티를 위하여 뭘 따로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주류 매체로의 접근성 부재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걸 여기에서 다룰 수 없다. 하나만 의제로 내놓겠다. 호주에서 전체로서 한인들이 겪는 애로 극복이나 지위향상은 거주국 정부와 주류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에 대한 주된 통로는 주류 매체이다. 호주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절친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간 영미지역 한인사회의 사례를 보면 주류매체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속수무책이고 누구 말마따나 우리끼리만 지지고 북고 하다가 끝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평소 대비가 없고 언어차별

(Linguistic disparity, 이견 인종차별이 아니다)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큰 신문이 실어 줄만한 민생 관련 칼럼이나 기고문을 당연히 쓰지 못하는 것처럼 영미사회에서 자란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따로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아는 한, 미국의 <뉴욕 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캐나다의 <글로브 앤드 메일> 수준의 국제매체에 실릴 칼럼을 쓰는 한인 인재가 거의 없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이나 관련 기구들은 한국 문학과 정체성 장려책으로 작품 현상 공모를 꾸준히 해왔다. 왜 해외 한인 지위향상을 위한 한인 영어 칼럼니스트나 기고가 장려책은 전무한가.

호주에서 전체로서 한인들이 겪는 애로 극복이나 지위향상은 거주국 정부와 주류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에 대한 주된 통로는 주류 매체이다. 호주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절친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삼오 / 언론학 박사

Property & BUSINESS

FIELD & URBANITE
집 사기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Jenny 0403 316 467



12 APRIL 2024 1582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시드니는 남서부 외곽 Camden-Wollondilly, 멜번은 Nillumbik-Melton 등서 '수익' 'CoreLogic' 분석... "유닛 주거지 비율 낮은 교외지역, 투자수익 거둬 가능성 높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이 지난해 12월 분기 매매된 유닛 가운데 수익을 낸 매물을 분석한 결과 시드니에서는 동부 및 북부 일부 지방의회 구역에 자리한 유닛이 높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유닛 경매 현장. 사진: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처

지난해 유닛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 곳들을 각 도시별로 보면, 도심 외곽 또는 기존 인기 주거지역 (blue-chip neighbourhoods)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교외 지역과 달리 일부 지방의회 구역에서는 대부분 유닛이 소유주에게 자본이득을 안겨준 것이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직' (CoreLogic)에 따르면, 이는 매매된 유닛 5채 중 2채가 손실을 본 고

밀도 주거지역의 부동산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이 수치는 높은 가격의 단독주택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는 첫 주택구입자 및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어로직의 분석 결과 시드니에서는 지난해 12월 분기를 기준으로, 남서쪽 외곽에 있는 캄든 (Camden), 울론딜리 (Wollondilly) 지방의회 구역의 모든 유닛이 판매수

익을 거두었으며, 인근 캠벨타운 (Campbelltown)도 매매된 유닛의 98.7%가 수익을 냈다.

유닛 판매당 수익 창출 비율은 시드니 동부 (eastern suburbs) 랜드웍 (Randwick, 98.9%)과 노스쇼어 (north shore)의 모스만 (Mosman, 98.6%)이 가장 높았다.

▶ 2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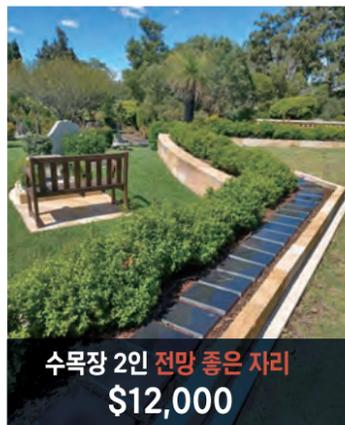
구입 후 관리비 및 사용 연장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구히 사용가능



가족수목장 (리드컴 록우드)
 2명에서 4명까지 가능



가장 무난하게 인기많은 화장자리
 2인 \$17,000~18,000



수목장 2인 전망 좋은 자리
 \$12,000



가족묘 4인자리 (매장 화장 다 가능)
 \$74,500



일반 매장 자리 (위 아래 2사람 사용)
 \$10,210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 20프로 디파짓에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가능

상담 문의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리드컴
 Lidcombe

카슬브룩 (라우즈힐역 맞은편)
 Castlebrook

블랙타운
 Blacktown

채스우드
 Chatswood

▶ 19면에서 이어받음

멜번(Melbourne)의 경우 북동쪽 외곽 닐룸비크(Nillumbik), 서부 외곽의 멜턴(Melton), 그리고 벤디고(Bendigo)와 멜번 사이, 메이스턴 레인지(Macedon Ranges) 지역의 유닛이 판매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브리즈번(Brisbane)의 경우 레드랜드(Redland), 시닉 림(Scenic Rim), 로키어밸리(Lockyer Valley), 소머셋(Somerset) 지역의 유닛이 이득을 보았으며, 퍼스(Perth)에서 유닛이 구입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지역은 문다링(Mundaring), 머리(Murray), 페퍼민트 그로브((Peppermint Grove) 및 서펜틴-자라데일(Serpentine-Jarrahdale) 지방의회 구역이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많은 지역에서 유닛 형태의 주거지 비율이 낮을 수록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매된 모든 유닛이 수익을 거둔 캄든(Camden) 지역의 경우, 유닛 형태의 주거지는 전체 주택의 약 4%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라마타(Parramatta),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의 유닛 형태 주거지는 전체 주택의 약 5분의 3을 차지하며, 해당 분기(2023년 12월 분기)에 매매된 유닛 중 약 4분의 1은 구매 당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오웬 연구원은 “이들 지역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투자자 중심의 공급과잉 시장이 아니다”면서 “지역 특성상 투기성 투자자가 적고 거주를 위한 유닛 소유자가 많으며 보유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코어로직은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 ‘유닛’이라는 용어에는 세미 하우스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지층 형태의 모든 주거지가 포함되기에 주택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웬 연구원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랜드워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60%가 유닛이지만 이들 중 다수는 중간밀도 또는 1960-70년대 지어



많은 지역의 유닛이 재판매시 손실을 보고 있으나 지난 몇년 사이 임대료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 Adpak



멜번 북동쪽 외곽에 있는 엘섬(Eltham)은 유닛 재판매로 수익을 거둔 멜번의 교외지역 중 하나이다. 사진은 최근 엘섬에서 매물로 나온 1개 침실 아파트. 사진: Jellis Craig Eltham

진, 보다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높아진 아파트이다.

그녀는 “가격이 치솟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구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유닛이라 해도 반드시 자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좋은 품질의 매물을 선택하고 해당 건축물의 역사를 면밀히 살핀은 물론 규모(넓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고 말했다.

이번 분석 결과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유닛의 크기는 다양했다. 헌터스 힐(Hunters Hill) 소재 유닛의 중간 매매수익은 61만5,000달러였지만, 그 비율(수익을 내고 판매한)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또 동부 울라라(Woolahra), 랜드워, 웨이벌리(Waverley) 및 모스만의 중

간 매매수익은 40만 달러였다.

멜번에서는 해안가 지역 유닛의 경우 수익을 낸 매매 비율은 낮았지만 수익을 거둔 유닛의 중간이득은 42만5,00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퍼스는 코츠슬로(Cottesloe) 교외 지역이 20만 달러, 브리즈번에서는 레드랜드의 유닛이 18만6,000달러로 가장 높은 중간수익을 기록했다.

멜번 외곽, 닐룸비크 지방의회 구역의 엘섬(Eltham)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 ‘Jellis Craig Eltham’의 트렌트 그린들(Trent Grindal) 에이전트는 “이 교외지역의 많은 아파트가 주로 다운사이저(downsizer)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단독주택을 판매한 뒤 지역 내 고밀도 블록이나 계단이 있는 유닛을 피하고 주로 단층 구조의 유닛(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은퇴자들이다.

모스만에 자리한 부동산 중개회사 ‘Cousins & Co’의 존 밀레인(John Millane) 에이전트는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아파트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유닛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고객 중 유닛 구매자는 투자자와 첫 주택구입자가 각 절반이다. 그는 모스만의 유닛 시장과 관련,

지난 2012년 71만 달러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밀리터리 로드(Military Road) 상의 한 매물을 소개하며 현재 140만 달러에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유닛들이 판매에서 수익을 얻는 배경의 하나로 그는 지난 수년 사이 크게 상승한 임대료를 꼽았다. 이 때문에 첫 주택구입자들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유닛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 유닛 판매시 수익 얻을 가능성이 높은 교외지역

(최소 98%의 유닛이 매매시 수익을 거둔 지방의회 구역, 2023년 12월 분기 기준. LGA : 판매수익 유닛 비율 / 중간 보유기간-year / 중간 수익)

- ▲ Sydney
 - Camden : 100.0% / 6.3 / \$184,250
 - Wollondilly : 100.0%
 - Randwick : 98.8% / 10.4 / \$448,750
 - Campbelltown : 98.7% / 8.4 / \$135,000
 - Mosman : 98.6% / 11.2 / \$430,000

- ▲ Melbourne
 - Nillumbik : 100.0% / 8.2 / \$186,500
 - Melton : 100.0% / 8.0 / \$105,500
 - Macedon Ranges : 100.0%

- Yarra Ranges : 98.5% / 9.5 / \$243,000

- ▲ Brisbane
 - Redland : 100.0% / 5.6 / \$186,000
 - Scenic Rim : 100.0% / 2.5 / \$117,500
 - Lockyer Valley : 100.0%

- Somerset : 100.0%
- Logan : 99.0% / 8.1 / \$125,000
- Moreton Bay : 98.7% / 7.6 / \$135,888

- ▲ Perth
 - Mundaring : 100.0%
 - Murray : 100.0%
 - Peppermint Grove : 100.0%

- Serpentine-Jarrahdale : 100.0%

-중간 보유기간이나 중간수익이 표기되지 않은 LGA는 이를 계산할 만큼 유닛 판매량이 적기 때문임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ABC SEAMLESS \$

거터(Gutter, 지붕 홈통) 전문 할인점

거터에 관한 모든 것, 저희에게 맡기세요!!!

NOW 20% 할인!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
월등한 가격 경쟁력

지붕 홈통(Roof gutter), 처마(Leafguard),
금속제 지붕(Metal Roofs) 및 지붕 보수

무료견적 TEL: 02 9748 3022

WEB: www.abcseamless.com.au | E-MAIL: abc@abcseamless.com.au

Lidcombe Central

A PARKSIDE VILLAGE COMMUNITY



AIO REAL ESTATE
공식 분양 대행사

REGISTER YOUR INTEREST
Tower B - Banksia



Lidcombe Central

- 위치 : 4 - 12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 건축 개요 : 아파트 3개동 301세대
(Tower A: 13층, B: 17층, C: 15층)
Tower B - 125 units 분양 예정
(1 Bed 62 units, 2 Bed 31 units, 3 Bed 32 units)
- 착공 2024년 2월 • 완공 : 2025년 연말 예정
- Display : 6 Raphael Street Lidcombe NSW 2141



Amy

0425 544 030



Caden

0410 237 800



John

0430 235 341



Lawrence

0405 329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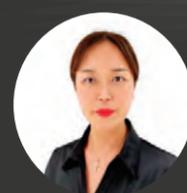
Jennifer

0439 058 058



Patrick

0432 632 876



Sun

0432 179 787



James

0451 665 007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ABS '인구 및 주택 행정' 데이터... NSW 주 전역, 4만3,183 채 달해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에서도 NSW 주 전역에 걸쳐 4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거주자가 없는 빈 주택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비어 있는'(inactive or vacant) 이들 주택의 절반 이상은 특히 주택난을 겪는 광역시드니에 있다. 사진 : 7 News 방송화면 캡처

호주의 주택위기, 특히 NSW 주의 주거지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inactive dwelling'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연방 및 각 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주택위기 해결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NSW 주 전역에 수만 채의 주택이 비어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NSW 주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비어 있

는' (inactive or vacant) 주택은 4만3,183채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특히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광역시드니에 있다.

NSW 선거구 별로 보면 빈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로 비사용 주거지는 1,757채에 이른다. 이는 시드니 시티 유권자(주소지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광역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시드니 시티에 이어 시드니 남부 헤프런(Heffron) 선거

구(1,201채), 파라마타(Parramatta. 1,081채), 뉴타운(Newtown. 1,044채), 발메인(Balmain. 809채)이 뒤를 이었다. 한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도 682채로 적지 않은 수를 보였다.

이는 통계청(ABS)이 작성한 인구 및 주택 행정 데이터 스냅샷의 일부로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집계해 최근 공개한 것이다.

ABS는 가장 최근인 2021년 8월 인구조사 데이터, 국세청(ATO), 보건 및 사회복지부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 각 가구의 특성을 파악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기를 소모하지 않은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 (inactive home)으로 간주했다.

ABS의 데이터 분석은 호주 미디어 그룹 'News Corp'에서 수행했으며 다른 기관의 자료와 상호 참조됐다.

이번 데이터와 관련, 시드니대학교 도시계획 및 정책

분석 전문가 니콜 구란(Nicole Gurran) 교수는 "주택이 사용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는 불피하기도 하다"면서 "주택 매매 사이, 임대 사이 또는 단기임대 부문에서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또 하나의 주거지로 유지되거나 개조작업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호주 주택의 약 10%가 빈 주택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점진적 증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NSW 주 정부는 주택 가격은 물론 임대료 급등으로 중저소득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신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월 주택구입 가능성 개선의 일환으로 단기 임대시장 변화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토론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로즈 잭슨(Rose Jackson) NSW 주택부 장관은 소유자

들이 단기 임대시장에서 주택을 광고할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광고를 거부하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란 교수는 정책 변화가 Airbnb와 같은 단기임대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우리는 단기임대 시장, 특히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 지역에서 더 많은 주택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 광역시드니 inactive dwellings

Sydney city	: 1,757
Heffron	: 1,201
Parramatta	: 1,081
Newtown	: 1,044
Strathfield	: 682
Ryde	: 641
North Shore	: 641

Source : AB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남서부 외곽을 연결하는 M5 South-West Motorway를 이용하면서 지급한 통행료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사진 : Expressway

▶ 4면에서 이어받음

△ WestConnex M4 Motorway ,
△ WestConnex M5 East Motorway ,
△ WestConnex M8 Motorway ,
△ NorthConnex이다.

다만 몇 가지 규정이 있다. 'M5 South-West Cashback Scheme'에 이미 등록된 운전자는 자

격이 없다. 또 트럭이나 버스 등 B등급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 음식배달, 택시, 렌터 차량, 공유차량 등록 운전자 등도 환급 신청 자격이 없다.

▲ 가장 큰 혜택 예상 운전자는 =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에 거주하면서 도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운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

인다. NSW 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켈리빌(Kellyville)에는 7,406명의 적격 운전자(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 리베이트 금액은 145달러로 추산된다. 또 마스든 파크(Marsden Park)의 5,491명 운전자는 평균 195달러를 환급 받을 것으로, 특히 라켄바(Lakemba) 거주 운전자의 평균 환급액은 309달러로 예상된다.

▲ 어떻게 청구하나= 우선 NSW 서비스부(Service NSW) 계정이 필요하며, 첫 단계는 개인 통행료 계정을 Service NSW 온라인 계정에 연결한다. 이곳에서 환급 가능한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면허증(driver licence), 여권(passport), 메디케어 카드(Medicare card) 등의 ID

가운데 두 개의 ID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통행료 비용 부담, 해결에 도움될까= 물론 이는 각 운전자의 상황에 달려 있다. 민스 주 총리는 통행료 환급 한도에 대해 "각 가계가 겪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하려는 주 정부 약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 주총리이자 Western Sydney부를 담당하는 프루 카(Prue Car) 장관도 "너무 오랫동안 시드니 서부 거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통행료 감면 계획으로 차량 운전이 많은 근로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계획이 나온

지난 1월, NSW 사회복지협의회인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 (NCOSS)의 벤 맥알파인(Ben McAlpine) 최고경영자 대행은 "주 정부의 통행료 환급 계획이 환영받기는 하지만 최저소득층 주민들의 즉각적인 운전 비용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을 하는 4명 중 1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PROJECT MARKETING
HOUSE AND LAND PACKAGE
SALES AND AUCTION
PROPERTY MANAGEMENT

Where Dreams
Come Home

02 9884 7811
503, 7 Railway st, Chatswood

채스우드 웨스트필드 KIOSK 설명회

4월 15, 16, 17일

Off The Plan, 완공된 Unit, Townhouse,
House 등 정말 다양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투자나 자가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모아 놓은 자금이 부족한 분들,
꼭 들르셔서 부담없이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부자 되는 부동산 세미나

몰입과 선택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까?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503, 7 Railway St, Chatswood NSW 2067
준비물: 부담없는 마음
내용: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맛있는 저녁, 다과 및 차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장소가 제한적이니
사전예약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드립니다.
예약문의 : Jenny 0403 316 467

3만 불로 라우즈힐에 방 4 - 5개가 있는 이층집 사기!



Price : \$1mils~

22/40-50 Union Rd Penrith NSW 2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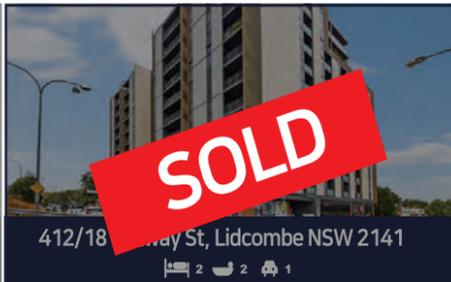
- 북층으로 이루어진 펜리스 중심가 아파트
- 역과 쇼핑센터는 물론 공항과 학교가 근접해 있어 무척 편리
- 관리비가 싸서 투자하거나 거주하기에 적합

Price : \$569,000 - \$599,000



1106/...ckyard Bvd, Lidcombe 2141
🛏️ 3 🚿 2 🚻 1 (3/2/1)

- 올림픽 파에 위치한 방 3개의 깔끔한 아파트
- 공원과 기차역, 버스정류장과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
-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공원처럼 꾸며진 바비큐 공간



412/18...way St, Lidcombe NSW 2141
🛏️ 2 🚿 2 🚻 1

- 거의 새 것같은 햇살이 가득한 북향의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
- 올림픽 파과 골프장,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근접거리에 있어 렌트가 잘 나가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 한인들의 중심지인 리드컴에서도 중심가인 곳에 위치



2/2...er St, Ryde NSW 2112
🛏️ 1 🚿 1 🚻 1

- 역과 학교, 강가와 상점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꿈의 터전
- 79 sm2의 사이즈가 큰 방 1개와 2nd room 사이즈의 스테디, 널찍한 발코니
- 첫주택구매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렌트가 잘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323/... Koorine St, Ermington
🛏️ 1 🚿 1 🚻 2

- Water Front, 공원, 산책코스로 이어지는 고급 힐링 주거 공간
- Total 129m2, internal 88m2로 2bed 보다 더 큰 공간
- 2개의 주차공간이 있어 2대 차를 보유한 커플과 가족에게 최상의 기회



Jenny Cho
Licenced Agent/LREA 20134299

Mob: 0403 316 467

Email: jenny.fieldandurbanite@gmail.com

 FIELD & URBANITE

Best choice for entertainment

iNSIDE Magazine

12 April 2024

NSW 운전자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A4면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A8면



제28대 호주 Governor-General 지명된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는 누구?

Dame Quentin Bryce 이어 두 번째 여성-사업가 출신의 첫 총독

데이빗 헐리 후임으로, 첫 여성 AFL 위원-Chief Executive Women 회장 역임



변호사이면서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활동을 이어온 사만타 모스틴(Samantha Mostyn. 사진) 전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의장이 오는 7월 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제28대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에 지명됐다. 사진 : AFL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호주 총독 (Governor-General)으로 연방정부의 여성 경제평등 타스크포스(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를 주도했던 사만타 모스틴(Samantha Mostyn) 변호사가 지명됐다.

사업가이기도 한 사만타 총독 지명자는 호주 첫 여성 Australian Football League(AFL) 위원이었으며, 그에 앞서 Chief Executive Women 회장을 역임했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 4월 3일(수) 아침, 캔버라에서의 미디어 브리

핑을 통해 현 데이빗 헐리(David Hurley) 총독 후임을 지명하면서 “샘 모스틴은 오늘날 호주를 대표하는 뛰어난 리더”라고 설명한 뒤 “그녀는 호주의 강력한 원칙에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로 그녀의 총독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스틴 지명자는 “이처럼 큰 특권을 갖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모든 호주인의 가치, 희망, 열정을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위직에 수반되는 기대를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성실,

연민, 존중의 자세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 헐리 총독(제 27대)의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모스틴 총독 지명자는 7월 1일부터 제28대 호주 총독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2020년 'ABC iview'의 'One plus One' 프로그램에서 휠체어 레이스 커트 펀리(Kurt Fearnley, 왼쪽)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스틴 변호사(오른쪽). 그녀는 "내게 있어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일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 Women for Election

▶24면에서 이어받음

**익숙하게 따라다니는
'being the first'**

모스틴 변호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첫 번째' 라는 것에 익숙하다는 말이 따라다닌다. 20년 전, 그녀는 AFL(럭비와는 다른 호주 룰의 럭비 리그) 위원회에 합류한 최초의 여성 위원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리그의 위원회는 남성들만의 무대(boys club)였으며, 그녀의 위원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AFL에 소속된 3개 구단은 여성이 위원으로 합류하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모스틴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리그를 이끌던 로스 오클리(Ross Oakley) 회장에게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내가 마지막이거나 유일한 여성이 된다면 나는 실패한 느낌을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여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AFL의 여성 위원은 그녀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수행하게 될 총독직은, 물론 첫 번째는 아니다. 그 영광(?)은 지난 2008년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정부에 의해 지명된 켄틴 브라이스(Quentin Bryce. 당시 브라이스 여사는 퀸즐랜드 주 총독-Governor으로 재임 중이었다)이다.

한편으로, 샘 모스틴 지명자의 이력을 보면 새로운 유형의 여성 총독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호주 총독 지명자 후보의 직업군은 넓지 않았다(small pool). 현재 27대 총독이 재임 중인데, 가장 마지막 10명의 총독 직업을 보면 5명이 법조인, 군 출신 3명, 정치인 1명, 대주교 1명이 있다.

물론 모스틴 지명자가 법원 근무, 변호사 이력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부문, 스포츠 및 예술을 포괄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진다.

또 하나는 그녀가 보여온 대중적 신뢰이다.

모스틴 지명자는 대의명분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ABC 방송(ABC iview) 'One Plus One' 프로그램의, 호주 휠체어 레이스 커트 펀리(Kurt Fearnley)씨와의 대답에서 "내게 있어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일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각 분야에서
추구했던 변화는...**

모스틴 총독 지명자를 평가할 때 우선 거론되는 것이 '리더십 부문에서의 다양성 강화' 이다. 그녀는 "포용적 결정을 내릴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다양성의 적절한 배분을 충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끌어내고 모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 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자칫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이들과의 조화(reconciliation)이다. 모스틴 지명자는 그 한 예로 'Black Lives Matter' (BLM. 2012년, 17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Trayvon Martin을 총으로 살해한 George Zimmerman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 #BlackLivesMatter를 사용하면서 확산된 반인종차별, 반인종불평등 운동)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특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며 나는 그것이 호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교육은, 우리에게 6만 년의 풍부한 역사(원주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토지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은 결코 (그들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이 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금 '호주' 라고 부르는 국가를 만들고자 온 점유자들이 차지했다" 고 말한 바 있다.

호주에서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총독에 지명된 것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입헌군주제(영국의 왕을 군주로 하는)보다 호주의 공화제

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연설에서 한때 자신의 상사이자 원주민 화해를 모색했던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모스틴 지명자는 키팅 정부에서 노동 관련 정책 자문관으로 일한 바 있다)에 대해 밝힌 것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그녀는 "그(폴 키팅)는 국가에 대한 야망을 표현했던 총리였으며, 이는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는 분명 공화국을 원했다. 그는 완전히 진화된 호주를 원했지만 이는 호주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 땅과 그 사람들' (First Nations and First Peoples)과의 지속적인 화해에 대한 그의 열망과 연결되었다. 그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고 강조했다.

물론 역대 총독 가운데 모스틴 지명자가 첫 공화제 지지자는 아닐 것이다. 전 노동당 당대표이자 제21대 총독을 역임한 빌 헤이든(Bill Hayden)이 그런 인사 중 하나이다.

어찌됐던 모스틴 지명자가 호주의 공화제 전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계속 견지할 것인지,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총독직을 뒤흔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스틴 지명자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공화제 운동에 활용하고, 또한 호주의 공화제 전환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찰스 3세 국왕에게서 친구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녀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녀와 함께 일해 본 이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

열성적 성평등 옹호자

2022년 모스틴 변호사는 그해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재정장관이 소집한 여성 경제평등 타스크포스(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의장에 임명됐다.

갤러허 장관은 이 타스크포스 팀에 경제적 성평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담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 모스틴 의장은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했다. 그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여성들은 여전히 깊고 광범위한 성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이들(여성들)의 필수적인 기여는 종종 저평가되고 (그대가도) 과소 지급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연속시킨다", "그들은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경제적 번영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 조치' 를 기다리는 데 지쳐 있다" 는 것이었다.

이후 모스틴 의장 주도의 타스크포스가 제안한 권장사항 중 3가지가 채택됐다. △흡부모 양육수당 강화, △유급 육아휴직 연장, △휴가수당에 대한 퇴직연금('super') 지급이 그것이다.

이 타스크포스에서 모스틴 의장과 함께 참여했던 현 생산성위원회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 위원장은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말했다. "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당뇨 위험을 낮춘다

1 in 11 adults have diabetes (415 million)



11명 중 1명이 당뇨병

By 2040, 1 adult in



10 (642 million) will have diabetes

2040년 전세계 당뇨 예상 인구 6억4천만명

<출처: 국제당뇨연합(IDF)>

▶ 전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이 당뇨병

전세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추정된다. 국제당뇨연합(IDF)이 지난 1일 World Diabetes Congress 2015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4억 1500만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3억 1800만명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았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40년에는 당뇨환자가 약 6억명에 이르러 전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뇨병의 심각한 상황은 한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의 경우, 당뇨병 또는 당뇨전단계 인구가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4명 중 1명이 당뇨 전단계 혹은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이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질병을 말한다. 병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7초에 한 명 꼴로 당뇨병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큰 원인은 혈관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혈당 조절, 좋은 콜레스테롤(HDL)의 수치가 중요해

최근 HDL(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당뇨병의 전조인 공복 혈당 장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대학교 연구팀이 중년 남녀 6438명을 대상으로 HDL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혈당장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0mg/dL 이상인 남성들은 공복혈당 장애 비율은 33.4%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보다 낮은 남성들(45.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여성의 공복혈당 장애 비율(38.2%)이 HDL수치가 정상이거나 높은 여성들의 공복혈당장애비율(19.8%)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혈당장애는 2형(성인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된 혈당 농도가 100~125mg/dL면 공복혈당장애(100mg/dL 미만 정상, 126mg/dL 이상 당뇨병 의심)에 해당한다.

공복혈당장애는 당뇨 전 단계이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신호다.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당뇨병 만성 합병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동맥경화가 주범인 혈관질환이 가장 치명적이다. 혈당 상승과 더불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위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49.5%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 못지 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를 정상 이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의 HDL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는 남자는 40mg/dL이상, 여자는 50mg/dL이상이다.

▶ 장수국 쿠바는 '폴리코사놀'로 HDL을 관리한다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스타틴'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HDL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 받은 약물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

100세 장수국 쿠바는 자국의 대표작물인 사탕수수의 왁스에서 추출 정제한 자연유래원료로 국민들의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쿠바산 '폴리코사놀'로 이미 쿠바를 비롯한 세계 30여개 국에서 콜레스테롤 관리제로 쓰이고 있으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와 같이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쿠바에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편집자 주)



폴리코사놀 사탕수수왁스알코올

'혈압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2중 복합 기능 인정

- ◎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 인체적용시험 결과 수축기 혈압 7.7% 감소 확인(12주)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들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혈압환자는 성인 인구 중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거나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수 역시 1000만 명을 넘어서 30세 이상 인구의 약 40.5%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쿠바산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이하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한국 식약처로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꾸준히 사랑 받아온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다. 지난 7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또 하나의 기능성인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기능성 내용은 매일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 섭취 시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한국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조절' 기능성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유일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극했다. (섭취량 :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5-20mg), 혈압 조절(20mg))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쿠바에서 자라는 사탕수수 잎과 줄기부분의 왁스에서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을 특정 비율로 추출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많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인체적용시험 결과 혈압 7.7% 감소 확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혈압 조절 기능성이 확인되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7.7%의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건강한 성인 84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12주 동안 각각 쿠바산 폴리코사놀 10mg, 20mg, 위약을 섭취하게 한 후 4주마다 혈압을 측정했다. 혈압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의 방법(수은 혈압계, 전자 혈압계, 맥파분석기)으로 혈압 측정을 하고 그 평균 수치를 구했다. 그 결과,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수축기 혈압이 0주차 136.3mmHg에서 12주차에는 125.8mmHg로 약 7.7%의 수축기 혈압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폴리코사놀 10mg 섭취군도 12주동안

평균 수축기 혈압이 136mmHg에서 128mmHg로 약 6% 감소했고, 심장 대동맥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도 20mg섭취군과 10mg섭취군 각각 8.3%와 7.4% 감소해 용량 의존적으로 혈압 강하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공중보건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공중보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HDL 양과 기능을 향상시켜 혈압 조절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혈압 조절 기능성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수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4주간의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20mg 섭취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 약 9% 감소, 이완기 혈압 8%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쿠바산 폴리코사놀 섭취 후 혈중 내지질 조성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20mg 섭취 군의 경우,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13%와 18% 감소했으며, 반대로 HDL의 수치는 약 1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던 조경현 박사(혈관학회 이사)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시키며, 이를 통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고 동맥 병변(플라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동맥 내강이 넓어져 혈압 조절에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분석하면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혈압을 강제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HDL 기능 향상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강제로 혈압을 내리는 기존의 혈압 강하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 4월 3일, 캔버라 의사당에서의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의 차기 총독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호주의 강력한 원칙에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로 그녀의 총독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알바니스 총리와 함께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한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는 “성실, 연민, 존중의 자세로 (총독으로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25면에서 이어받음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가 아주 훌륭한 의사 소통자일 뿐 아니라 좋은 경청자이며, 그녀의 상호 작용에서 나오는 공감과 따뜻함은 정말 빛이 날 정도였다” 라고. 이어 우드 위원장은 “모스틴 의장은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이라고 평가했다.

모스틴 변호사가 이끄는 정신건강 지원 민간기구 ‘Beyond Blue’ 의 케이 트 카넬(Kate Carnell) 부 의장 또한 “정말 놀라운 (차기 총독) 지명” 이라는 반응이다.

ACT 수석장관이자 호주 상공회의소라 할 수 있는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대표이기도 한 카넬 부의장은 “모스틴 지명자는 우리가 총독에게 원하는 역량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모스틴은 영리한 사업가이면서 또한 여성, 가정폭력, 성평등, 기후변화, 호주 원주민에 대한 열정적 옹호자이기도 하다” 면서 “누구를 상대 하든 동등하게, 자신이 아 끼는 사람으로 대한다” 고 말했다.

**폴 키팅 정부서
노동 관련 정책자문관 경험**

1990년대, 모스틴 지명자는 노동당 폴 키팅 총리 및 노동부 장관의 정책 자문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있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모스틴 지명자는 그 당시를 “내가 거친 여러 직업 가운데 가장 운이 좋았던 시기 중 하나” 라고 묘사하면서 “또한 정치 최고위층에서의 매력 없는 문화를 발견했다” 고 토로했다.

이어 “매우 남성적이며 마초적이었고 내 입장에서 는 결코 건강한 시간들이 아니었다” 는 그녀는 “이 곳은 좋은 결정을 내리거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스틴 지명자는 “나는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가입한 적도 없지만 좋은 정부의 힘을 믿는다. 하지만 여성들이 ‘살기’ 위해(그저 ‘일을 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 채 (정치계로)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었다는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팅 전 총리는 모스틴 변호사의 총리 지명에 대해 “총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평했다. 키팅 전 총리는 “(그녀는)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모두에서 그랬듯 공적 부문에서도 많은 봉사를 해 왔으며 이는 그녀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뛰어난 공동체주의자

로 만들었다” 며 “실제로 그런 여러 부문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 고 평가했다.

이어 키팅 전 총리는 “이런 경험과 관심은 그녀가 타고난 능력, 가치, 세상에 대한 감각을 뛰어넘어 그 고귀한 지위(총독이라는)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 고 밝혔다.

■ 사만타 모스틴 프로필

1960s : 1965년 9월 13일, 육군 장교의 딸로 태어남

1980s :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에서 인문학 및 법학 학사 취득

1990s : NSW 상소법원(NSW Court of Appeal) 법원장이었던 마이크 커비(Michael Kirby) 판사의 동료로 근무. 당시 호주 최고 법무법인 중 하나로 꼽히던 ‘Gilbert and Tobin’ 변호사로 근무. 전 교통-통신부 장관이었던 밥 콜린스(Bob Collins) 상원의원 수석 정책 고문. 전 통신 및 예술부 마이클 리(Michael Lee) 수석 정책 고문, 폴 키팅 전 총리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

2005-2017년 : 호주 최초의 여성 AFL 위원으로 AFL 정책개발 책임자 및 여성 AFL 대회 설립

2009년 : ‘Crawford Sports Funding

Review’ (호주 스포츠 관리에 관해 검토하고 권장하는 네 가지 보고서 중 하나) 관련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에 위임

2010s-2020s : ‘Insurance Australia Group’, ‘Optus’ 및 ‘Cable & Wireless plc’ 고위 간부 역임. ‘Transurban’, ‘Virgin Australia’, ‘Citibank Australia’ 비상임 이사. 여성 기후행동그룹 ‘1 Million Women’ 창립 후원자이자 5년간 의장. ‘Global Business &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위원으로 활동. 비영리 민간그룹 ‘Beyond Blue’, ‘Foundation of Young Australians’, ‘Australians Investing in Women’, ‘Ausfilm’,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Carriageworks’ 의장 및 ‘The Australian Museum’ 관장 역임. ‘Reconciliation Australia’,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Sydney Theatre Company’, ‘GO Foundation’,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The Climate Council’,

‘Tonic Media’, ‘Climateworks Australia’ 이사회 소속
2012년 : 국립 정신건강 관련 기구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초대 위원. ‘The Prince of Wales’ Business & Sustainability Programme’ 호주 교수진 회원이자 국제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2013-2017년 :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장
2017년 : AFL 소속 구단 ‘Sydney Swans’ 운영 이사회 합류
2018년 : 기후변화 대책 활동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ANU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AFLW Cup 홍보대사 임명
2019년 :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로부터 연례 ‘Climate Awards’ 수상
2020년 : 유엔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United Nations Day Honour Award’ 수상
2021년 : 기업, 지역사회 및 여성을 위한 봉사를 인정받아 ‘Order of Australia’ 수훈
2023년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활동가를 표창하는 ‘Edna Ryan Awards’ 에서 ‘Grand Stirrer’ 수상
2021-2022년 : ‘Chief Executive Women’ 회장
2022년 :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의장 임명
April 3, 2024년 : 제28대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에 지명(2024년 7월 1일 취임), 현재 ‘AWARE Super’ 의장, 부동산 개발 회사 ‘Mirvac’ 이사회 임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영상미디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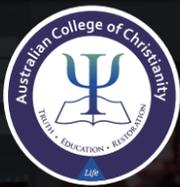
학생모집

시를 활용한 비디오 제작, 웹툰 제작, 음성 녹음 등의 최신 트렌드를 영상미디어학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년 혹은 4년, 5년 6개월 비자 가능

로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학비 •풍부한 임상 경험 •슈퍼비전(20년 경험) 	유학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4년비자 •주1일 or 2일 수업 •매텀 수시모집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 교민들을 위한 장학금과 사역자 장학금 추가 적용	
전과정 온라인 가능	CHC81015 상담학과 준석사 CHC51015 상담학과 준학사 CHC43315 정신건강 Cert IV* CHC42315 교목과 목회돌봄* CHC43015 노인돌봄Cert IV* SIS50321 스포츠 준학사 SIS40321 스포츠코칭 Cert IV*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Diploma Of Counselling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Certificate IV In Chaplaincy And Pastoral Care*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Diploma Of Sport Certificate IV In Sport Coaching*	10741NAT 신학 Cert III* 10742NAT 신학 Cert IV* 10743NAT 신학 준학사 10744NAT 신학 고급 준학사 CUA51020 영상미디어 준학사 CUA31020 영상미디어 Cert III* CUA41220 영상미디어 Cert IV*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Diploma of Screen and Media Certificate III in Screen and Media* Certificate IV in Screen and Media*	

*표시는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한 학과입니다. 상위과정은 어스터디 가능 코스와 더 degree로 하시면 많은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공부 가능합니다.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 Truth Education Restoration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호주기독교대학교 RTO 40892 CRICOS 03461B

어스터디 가능
(상담필요)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www.accu.edu.au, info@accu.edu.au

캠 퍼 스 시드니/캔버라
 멜번/브리즈번



ACC 협력기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호주 한인 생명의전화

+61) 2 9858 5900
 24시 무료상담

info@koreanlifeline.org
 www.koreanlifeline.org

생명의 전화는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기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의뢰처를 연결해 드립니다. 호주 전역 24시간 가능. *상담원 모집 문의 : +61) 430 045 078



원앤원(One&One)
 심리상담연구소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info@accu.edu.au

탁월한 심리 상담연구소 원앤원(One&One)에서는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각종 정신건강, 심리문제 및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관련 심리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Charis College Ministry

+61) 402 140 905

ccm@accu.edu.au

선교지에 상담학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전액 장학금 교육을 실시해서 호주 상담학 학위를 수여하여 기독교 상담자를 양성하여 선교 국가에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일본, 몽골, 탈북민, 태국, 말레이시아 시작)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광상언 후보가 11일 새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지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 '명룡대전', '정치 1번지... 화제의 선거구 성적표는

각 당의 공천 과정부터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지역구에서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의 '명룡대전'으로 눈길을 끈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 대표가 승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4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의 서울 동작을 대결은 '한강벨트'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다. 민주당 이 대표가 무려 6차례나 이곳을 찾았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나 전 의원이 54% 이상을 득표하며 이 대표의 지원 사격을 무위에 그치게 했다.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속에 치러진 서울 종로 여야 대결에서는 민주당이 탈환에 성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재선을 노린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 '여전사 대결'로 관심을 끈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경제통'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제쳤다.

이번이 연출된 화제의 선거구도 있었다.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진 경기 화성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개표 마지막까지 초접전을 벌인 끝에 이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30대 청년 정치인'의 대결이 펼쳐진 서울 도봉갑 결과도 이번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꺾으면서 12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

'운동권 출신 맞대결'이 성사된 서울 마포을에서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표밭을 갈아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선 고지를 밟았다. '저격수'로 나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정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북 경산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치 신인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이겼다. 애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이기던 최 전 부총리는 조 후보의 국민의힘 간판 밑에 텃밭 표심이 결집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다.

울산 북구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당선된 윤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당선

자로 기록됐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보다 5배가 넘는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뒤 이 지역구에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물러났다.

■ 조국,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사전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 3면에서 이어받음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

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

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다.

■ 의석별 행사 가능한 국회 권력 ▲ 200석 이상(재적의원 2/3)

- 헌법개정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 탄핵 소추
-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180석 이상(재적의원 3/5)

-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150석 이상

- 예산안, 법안 단독 처리
- 국회의장직 확보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 12면에서 이어받음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오늘 장관은 각 대학과 칼리지 등 전문 교육기관들이 학생비자 청렴성을 향상하고 호주 유입 이민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주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위험 등급 업데이트는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우리는 심각한 국제 교육 부문의 청렴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대학, 학생은 물론 호주에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장관은 “정부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가 10여 년 동안 방치한 이후 변화를 위해 교육 제공기관과 언제나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 부문이 저임금 노동의 뒷문(학생비자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하면서 학업보다는 노동에 전념하려는)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학생비자를 잘못 이용하는 국제학생 대행업체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까지 내놓았다.

오늘 장관은 2025년 7월까지 호주로 유입되는 순 해외이주를 연간 약

25만 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동당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호주 국제학생 규모에도 상한선을 둔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조치로 호주 학생비자 승인 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81%로 거의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등교육 대행사 단체인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대표는 유학 대행 업체들은 해외 학생들의 비자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했지만 2024년 첫 학기 동안 상위 교육기관에 부여된 우선권으로 인해 다수의 대행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로써 호주 유학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학문적 측면에서의 호주에 대한 명성을 잠재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제학생 대행업체 중 하나인 ‘Global Reach’의 라비 싱(Ravi Singh)씨는 “현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자취득 용이성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순위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진정한 의도의 학생들이 더 엄격한 요구사항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부총장은 현 내부부의 방침(



전 연방 이민부 고위 관리로 새 이민 시스템을 입안했던 찰스 스튜어트대학교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 사진 왼쪽) 부총장은 정부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를 대학에 적용하고 있다며 학생비자 발급의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LinkedIn / Mike Ferguson

위험 등급에 따른 비자처리 우선 순위)과 관련해 “저위험 지원자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모든 예비 국제 학생에게 영어능력과 재정적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공정한 시스템, 즉 서비스 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아웃소싱(국제학생 입학 등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학생비자 시스템은 거의 ‘반창고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 (Band-Aid upon Band-Aid)이라 본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Korean Community's & Best Quality Newspaper

“한국신문은 호주한인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장 이윤신 Peter Lee
- 편집인 김인구
- 편집국장 김지환 Kevin Kim
- 디자인 Emily Cha
- 관리 이선옥

카카오톡: Koreanherald
페이스북: 한국신문

T. (02) 9789 3300
E. herald@koreanherald.com.au
W. www.koreanherald.com.au
A. 105/118 Great North Rd
Five Dock NSW 2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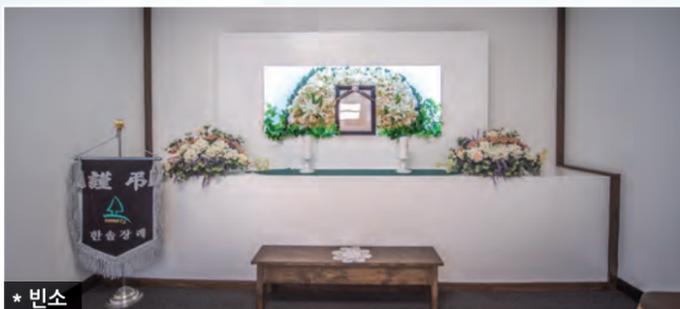
저작권자(©)한국신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인직영, 한인전용 한솔장례식장

“장례 기간중 입관식, 장례식, 빈소운영, 조문객 접대등 모든 절차를 준비된 한곳의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식장 - 장례식, 입관식 & 추모식 진행 - 70명 + 수용 규모
2. 빈소 - 장례 기간중 조문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전통식 공간
3. 조문객 접대실 - 장례 기간중 방문하신 조문객 접대 - 80명 동시 수용 규모

4. 부역 - 조문객 접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5. 유가족 휴게실 - 빈소 운영중 필요에 따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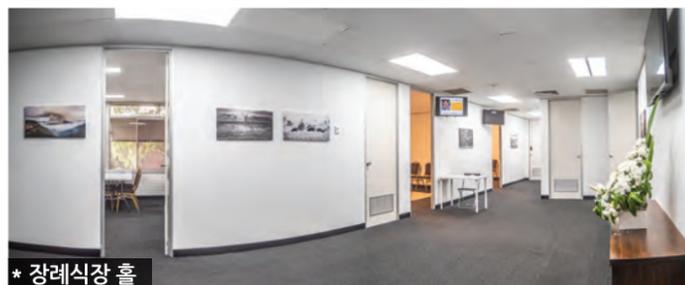
* 빈소



* 장례식/추도식/입관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식장 (70명 수용)



* 조문객 접대실 X 2 * 유가족 휴게실



* 장례식장 홀



한솔장례 Hansol Funeral Services P/L

문의: 02 9858 5547 / 0404 116 758 (주 7일 / 24시간)
주소: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info@hansolfs.com.au / www.hansolfs.com.au



호주 NO.1* 폴리코사놀 브랜드
레이델 폴리코사놀10

레이델 폴리코사놀은 호주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폴리코사놀 브랜드입니다.



김명민
 레이델 홍보대사
 배우 김명민



쿠바산 폴리코사놀
 독점원료



RAYDEL Policosanol 10

- ✓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
- ✓ 혈중 지질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

레이델 폴리코사놀10은 쿠바 사탕수수 왁스에서 분리된 8가지 고분자량 알코올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물에 대한 각 알코올의 상대적 비율은 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출처: IRI Pharmacy MarketEdge data, MAT to 3/11/2019

Always read the label. Follow the directions for use. If symptoms persist, talk your health professional.